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3년 6월

선교편지 제 164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은 매우 강한 '가족' 중심의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의 가장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가 아닌 이곳은, 자녀들을 돌보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는 기본적인 일상 외에, 실제로 경제를 꾸려 나가는 주체가 여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많은 가운데, 여성들은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 지 조금도 쉬는 일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고, 동네 세탁물을 모아 수돗가에서 하루 종일 빨래를 대신하기도 하고, 땀감을 주어서 팔기도 하고, 심지어 돈을 꾸러 다니는 일도 여성이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여성의 존재감이 눈에 띄지만, 학원 사역을 위하여 방문하는 학교나 시내 관공서를 방문해도 전문직에 여성들이 참 많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교사들 중에, 남편의 주된 일은 부인을 학교로 출퇴근 시킨 후 집안 일을 돌보는 것이고, 부인은 학교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제의원연맹 (FIU)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의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이 점유하는 비율이 29%로 프랑스 26%, 영국 22%, 미국 17%, 한국 15%, 일본 1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곳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아주 가까이 신선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장학 사역의 통계를 보면, 여학생이 전체 학생의 70% 이상을 차지 합니다. 남, 여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정해서 선발한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의 점유율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남학생들은 아쉽게도 변동과 포기가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어떻게 하던지 대학을 졸업해서 전문직 직장을 갖기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실제로 장학 사역을 통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교사가 되는 경우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 리더로 성장하는 숫자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 에 맞추어 디고스 예일 교회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서른 다섯 살의 '체리' 부인이 마침내 교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금년 초부터 매주 기도회 때마다, 온 교우들이 '체리' 부인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체리 부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제적인 형편으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허드렛일들을 하며 힘겹게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어서, 일용직이 필요한 곳은 어느 곳이던지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의 가정입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체리 부인은 이미 30세가 넘었지만, 대학에 진학하여 교사가 되는 꿈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년 전부터 디고스 예일 교회에 출석을 시작하게 되었고, 찬양팀과 주일학교에서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장학 사역에 합류할 수 있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지만, 그동안 체리 자매의 성실한 모습을 보아 왔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른 학생에 비하여 매우 늦게 장학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 제목을 교회 앞에 내 놓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학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염려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마침내 5년 만에 교사 자격증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잠 31:10)

합격 소식을 들은 후, 남편의 얼굴은 연상 싱글벙글 체리 자매보다 훨씬 더 활짝 피어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권 (Lotto)에 당첨되었다고 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리 자매의 지나간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보아 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결코 우연히 얻은 복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체리 자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좋으신 위로의 하나님 모습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연약한 여인이 생계를 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충성되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체리 자매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곳의 여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아무쪼록 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리브가, 드보라, 루디아, 브리스길라, 룯과 같은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17)**



선교지에 정착을 한지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가 정말 어려워만 집니다. 초기에는 무조건 복음을 들고 전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뛰어 들었는데, 현지 사정을 깊이 알아가며 선교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포 진열대에 있는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단순한 행위와 달라서, 선교지의 전통, 문화, 습성, 언어, 사고등과 같이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왜곡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지만, 오랜 시간을 통하여 단단하게 굳어진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의 간극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들고 전진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 아내와 허탈하게 웃으며 "혹시 우리가 '지구'가 아닌 '화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하곤 합니다. 같은 현상을 가지고 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방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홉스테데 (Geert Hofstede)는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인데,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 근무하는 10만명이 넘는 IBM직원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차이를 정리하여, 그 유명한 '홉스테데 문화 차원 이론 (Hofstede Cultural Dimensions Theory)'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느 특정 사회의 문화가 그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연관성을 분석한 이론으로, 국제 경영학과 비교 문화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매우 유명한 이론입니다. 국가별 문화적 가치관을 '개인주의 -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권력 거리', '남성 - 여성', '과업 지향 - 인간 지향', '장기 지향 - 단기 지향' 등의 흥미로운 주제로 각 나라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

이러한 홉스테데의 연구가 외교, 무역, 글로벌 기업 등과 같은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학'에도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선교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사를 특정 나라로 파송을 할 때, 복음 전파 이전에 선교사가 겪을 문화적 충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매우 많은 선교사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본연의 선교 사역보다 현지 적응에 더 많은 수고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수 없이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 같은 단기간의 방문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오랜 시간의 과정은 생각처럼 흥미롭거나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 없이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충분히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름' 속에서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가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홉스테데의 연구 결과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매우 정확하게 수치화 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선을 지키지 않고, 수 없이 끼어 들기를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짜증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끼어 들기를 할 만큼 바쁜 차량을 '배려'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지 문화 속에서는 언제든지 끼어 들기가 가능합니다. 끼어 들기로 인해서 전체 차량의 진행이 지연되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줄을 맞추어 섰는데, 어느 순간에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또한 두 줄이 네 줄이 되어서 더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서가 없어 보이는 모습에 대하여 불편해 하는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있느니, 없느니, 또는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평온합니다. 온 동네가 떠나 갈 정도로 밤 새도록 음악을 듣고, 흥겹게 노래를 부를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경찰이라도 불려서 진정을 시키고 싶지만, 신고를 하는 내가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 받을 것이 뻔합니다.

할수 없이 현지인들을 더욱 사랑하게 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합니다. 소소한 문화의 차이로 하루에도 수없이 내 자신과 싸우며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85% 정도를 가톨릭 신자로 구분하는데, 실제로 주일마다 미사에 참석하는 가톨릭 신자는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가톨릭 신자고, 주일에 해변에서 술을 마시며 놀음을 해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마약을 해도 가톨릭 신자고, 동성애를 해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을 사는 것과 관계없이 그들의 일상 언어 속에는 선교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복음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오랜 동안 경직된 문화 속에서 살고, 신앙 생활을 해 온 내 기준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흥분하지 않고, 적게 모인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 사람의 주의 참 제자에 집중하는 소박한 선교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의 목표가 복음을 아직 모르는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만들어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보여 주신 것처럼, 문화의 차이 속에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종의 위치에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문화의 차이 속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디고스 지역의 세 번째 교회 개척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